

# 은퇴와 행복

안 주 엽\* · 성 지 미\*\*

기대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조기퇴직 관행으로 강요된 은퇴를 경험한 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에 훨씬 앞서는 비자발적이고 예기치 못한 은퇴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의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고,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도를 저하시킨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장년층 부가조사에 포함된 50세 이상 74세 이하 은퇴자 1,011명을 대상으로 행복도의 결정요인을 찾는다. 실증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산과 부채 등 경제적 자산 뿐 아니라 건강자산 및 사회적 자산이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예상된 은퇴인 정년퇴직과 비교할 때, 여유가 있어 또는 가족들과 여가를 늘리기 위한 은퇴의 결정은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고 있다. 은퇴자, 더 나아가 고령자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충분한 은퇴 후 소득을 준비하는 과정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준비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구축과 은퇴 후 건강과 사회적 유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은퇴, 행복도, 경제적 자산, 사회적 자산, 은퇴사유

## 1. 들어가는 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조기퇴직 관행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중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부터 소위 ‘정년60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정년은 이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륙도’나 ‘사오정’ 등은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한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자발적 노동시장 퇴장이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일반적이며, 은퇴자가 국민연금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jsung13@koreatech.ac.kr)

OECD의 'How's Life 2015'나 UN의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등 대부분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가별 행복에 관한 보고서의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점 미만으로 나타나 경제성장과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장년층(50~74세) 부가조사(2015년)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에서 보듯,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된 행복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5.9점으로 성별 격차가 없으며, 국제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70%가 5~7점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은퇴 여부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은퇴하지 않은 자에 비해 은퇴자의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은퇴가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에서는 은퇴자와 미은퇴자 간에 행복도에 차이가 없고, 오히려 생애에 걸쳐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의 행복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산성에서는 연령대별 행복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에서는 젊을수록 행복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은퇴여부별로 보면, 남성 은퇴자에서는 50대 은퇴자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반면 여성에서는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미은퇴 남성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미은퇴 여성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게 나타난다. 부분은퇴자의 행복도는 남성에서는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에서는 55~59세를 제외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장년층의 은퇴여부와 행복도

	장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은퇴	부분은퇴	미은퇴	근로 경험무	전체	은퇴	부분은퇴	미은퇴	근로 경험무
표본	5,133	2,719	518	52	1,287	862	2,414	522	76	1,762	54
행복도											
0	0.1	0.0	0.0	0.0	0.0	0.1	0.2	0.4	0.0	0.2	0.0
1	0.4	0.3	1.0	0.0	0.2	0.1	0.4	0.8	0.0	0.3	0.0
2	1.6	1.4	2.5	0.0	1.3	0.9	1.8	4.4	1.3	0.9	7.4
3	4.0	4.2	4.8	5.8	4.2	3.7	3.8	5.7	5.3	3.0	9.3
4	9.0	9.5	9.7	13.5	9.2	9.4	8.5	11.9	3.9	7.7	9.3
5	25.2	25.6	26.4	30.8	26.3	23.5	24.7	23.2	23.7	24.9	33.3
6	21.5	20.5	18.0	21.2	22.2	19.4	22.7	19.2	30.3	23.6	20.4
7	22.2	22.5	20.8	13.5	22.4	24.1	21.8	18.6	21.1	23.0	13.0
8	13.3	13.1	14.9	15.4	11.5	14.2	13.6	14.2	11.8	13.8	5.6
9	2.3	2.4	1.7	0.0	1.9	3.7	2.1	1.5	1.3	2.4	0.0
10	0.5	0.6	0.2	0.0	0.7	0.8	0.3	0.2	1.3	0.2	1.9
평균	5.9	5.9	5.8	5.7	5.9	6.1	5.9	5.6	6.0	6.0	5.2
	(1.6)	(1.5)	(1.6)	(1.4)	(1.5)	(1.6)	(1.6)	(1.8)	(1.5)	(1.5)	(1.7)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표 2> 장년층의 은퇴 여부와 행복도: 연령대별

(단위: 점)

	남자					여자				
	전체	은퇴	부분 은퇴	미은퇴	근로 경험무	전체	은퇴	부분 은퇴	미은퇴	근로 경험무
전연령	5.9	5.6	6.0	6.0	5.2	5.9	5.8	5.7	5.9	6.1
50~54	5.9	4.6	6.0	6.0	5.2	6.1	5.9	5.5	6.1	6.3
55~59	5.9	4.9	6.3	6.0	5.0	6.0	6.0	6.3	5.9	6.0
60~64	6.0	5.9	6.5	6.0	4.3	6.0	5.9	5.4	5.9	6.2
65~74	6.0	5.8	5.6	6.1	5.6	5.8	5.7	5.4	5.7	6.0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인구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인구가 증가하자 최근 은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은퇴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로는 은퇴 준비과정, 은퇴 결정과정, 은퇴 후 소득흐름,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행복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년층의 행복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자산, 즉 금전자산(pecuniary assets), 건강자산(health asset 또는 health capital), 그리고 사회적 자산(social network assets)이 인구학적 특성에 추가하여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산발적으로 포함된 결정요인들을 통합하는 한편 은퇴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결정요인들은 제외한다. 금전자산에는 가구소득, 소득원별 소득의 유무, 다양한 형태의 자산 또는 부채의 보유 여부, 거주주택의 소유형태가 포함되며, 사회적 자산에는 다양한 단체참여에 추가하여 지척지인(가까이 사는 친척, 친구, 이웃사촌 등)의 존재 및 만남의 빈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정년퇴직과 같은 예정된 그러나 불가피한 은퇴,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이지만 선택적 은퇴, 갑작스런 은퇴 등 다양한 은퇴사유가 행복도에 미치는 추가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은퇴사유를 세분함으로써 은퇴사유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장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은퇴자 표본을 대상으로 은퇴의 실태를 간략히 분석한다. 제III절에서는 은퇴자와 행복도를 정의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세 가지 유형의 자산-금전자산, 건강자산, 그리고 사회적 자산-과 행복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제IV절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고려한 행복도 결정의 기본모형과 은퇴사유를 추가한 모형의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연구결과 및 이의 정책적 함의를 요약한다.

## II. 은퇴의 실태

### 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장년층 부가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본조사와 장년층 부가조사 및 삶과 인식 부가조사이다. 장년층 부가조사는 조사 당시 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인 5,153명을 대상으로 은퇴 상황, 현재 또는 과거의 주된 일자리, 은퇴 준비 및 은퇴 후 생활, 가족 관계, 사회관계, 건강에 대해 묻고 있다.

‘은퇴 상황’에서는 은퇴 상태, 은퇴 시점(연도)과 은퇴 당시 연령, 은퇴의 주된 이유와 이의 자발성 여부, 은퇴 당시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비은퇴자의 은퇴 계획(희망 은퇴 연령) 등을 묻고 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주된 일자리’에서는 수입 목적 근로(소일거리 포함) 여부, 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 정년 유무와 정년 연령, 일자리의 산업, 직업, 직책/직위, 주된 일자리의 개시 및 종료 시점, 주된 일자리 그만 둘 당시의 상황(종사상지위, 시간제 여부, 사업체규모,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월평균 임금/소득, 정년 유무와 정년 연령), 그만 둔 사유 및 이의 자발성, 퇴직급여제도 등을 묻고 있다.

‘은퇴 준비와 은퇴후 생활’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창업 준비/계획 여부 및 관련 사항, 소일거리 의지, 은퇴 준비 여부 및 방법과 이의 충분성, 은퇴 준비 않은 이유, 은퇴 후 생활비 조달 방안, 은퇴 이후 지출 항목,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은퇴 후 이사 계획, 최소한의 노후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및 적정 수준의 노후 생활을 위한 적절한 소득 등을 묻고 있다.

‘가족 관계’에서는 자녀의 수, 가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지원자 및 지원금액) 및 이의 정기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지원자 및 지원금액) 및 이의 정기성 등을 묻고 있으며, ‘사회 관계’에서는 지척지인(친구, 이웃, 친척)과의 교류 빈도, 교양과 취미활동 투입시간, 모임(종교, 친목, 동호회) 참여 빈도, 특정 단체 가입 여부 등을 묻고 있으며, ‘건강’에서는 최근 2주 동안의 ‘아파서 쉬어야 했던 날’, 40대 이후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주요 활동의 장애 경험 여부 등을 묻고 있다.

### 2. 은퇴자의 정의

본 부가조사에서는 은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_\_\_\_\_님은 현재 은퇴하신 상태입니까?’

에 대하여

(1) 은퇴하였다. (은퇴자)

(2)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 일은 계속하고 있다. (부분은퇴자)

(3) 은퇴하지 않았다.

(4) 과거에 한 번도 취업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은퇴자는 1,17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부분은퇴자는 12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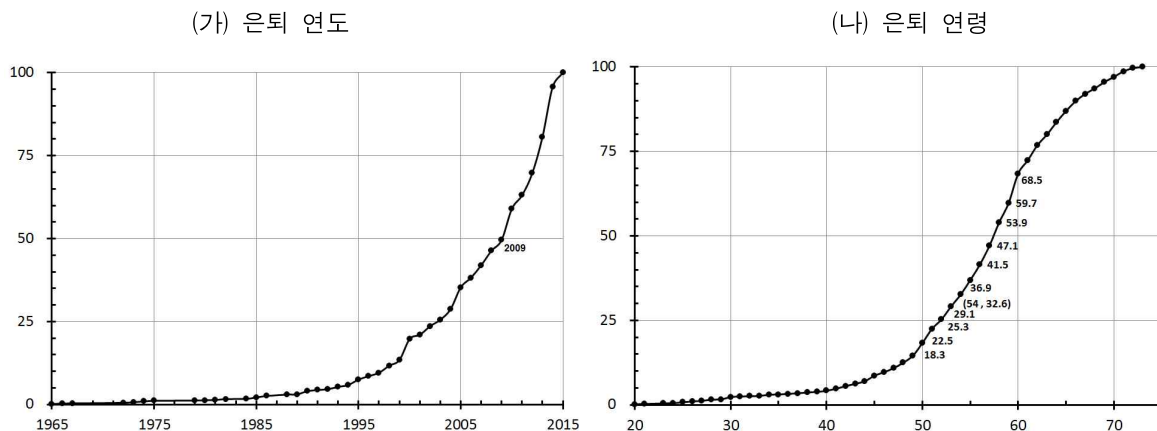
### 3. 은퇴자의 은퇴 실태

여기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실태 관련 간략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먼저 다음 그림은 이들 은퇴자의 은퇴시점 및 은퇴 당시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50%가 2008년 이전에 은퇴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은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외환위기에 따른 은퇴자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전 은퇴자는 15%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당시의 연령을 보면, 50세 이전이 18.3% 정도이며, 33%가 54세 이전에 은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0세 이후 은퇴자가 32% 정도로 나타난다.

장년층 부가조사에서는 ‘\_\_\_님께서 은퇴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해

[그림 1] 은퇴자의 은퇴시점 및 은퇴연령별 누적분포

(단위: %)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5,153명 중 (부분)은퇴자 1,170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 1) 조사표 상 은퇴 관련 설명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 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미취업상태에서 생계를 위한 일을 찾고 있다면 은퇴하지 않았다고 해당. ‘소일거리 일’은 취미, 특기 활동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로, 생계유지와 무관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함.

- (1) 정년퇴직으로 인해
- (2)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
- (3) 본인의 수입이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서
- (4) 배우자의 수입이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서
- (5) 해고(징계, 정리해고 포함)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 (6)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 (7) 일하기가 싫어져서/일로 인한 스트레스 등
- (8) 고용주나 일로부터의 압박감 때문에
- (9)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 (10)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 (11)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 (12)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 (13)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14) 손자, 손녀 등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15) 기타 \_\_\_\_\_
- (16)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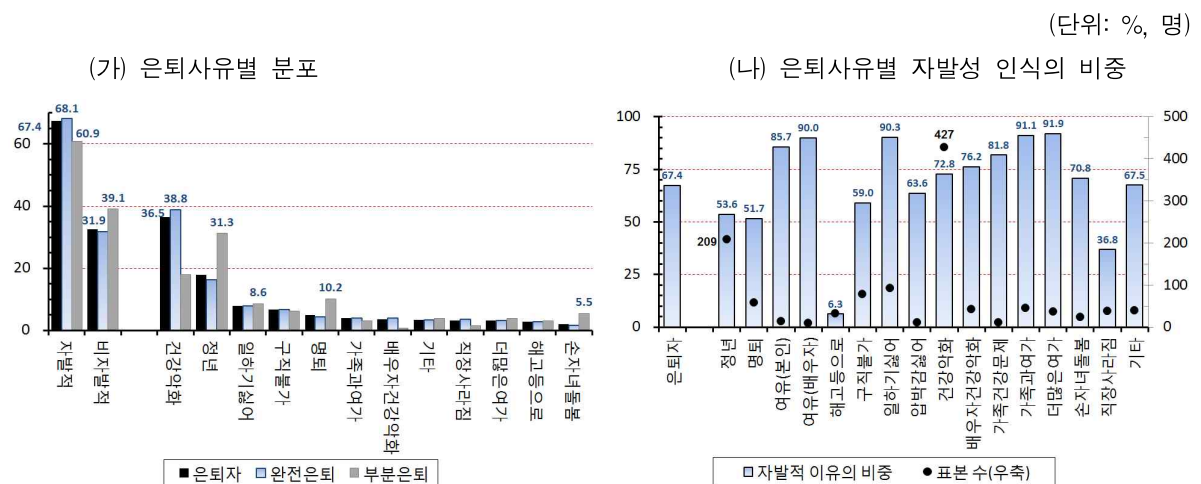
중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어진 설문 ‘그렇다면, 은퇴하신 주된 이유는 자발적인 이유입니까, 비자발적인 이유입니까?’을 통하여 은퇴의 자발성을 묻고 있다.

은퇴의 주된 이유별 분포를 보여주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 67%가 은퇴가 자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완전은퇴에서는 이의 비중이 68%로 다소 높은 반면 부분은퇴에서는 61%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은퇴의 주된 이유 중 ‘본인의 건강 악화’(37%)와 정년퇴직(1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일하기가 싫어져서/일로 인한 스트레스 등’(8%)과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7%) 및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5%) 등이 다소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사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다. 본인의 건강 악화의 경우 완전은퇴에서는 3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분은퇴에서는 18% 정도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정년의 경우 완전은퇴에서는 16% 정도인 반면 부분은퇴에서는 31%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은퇴 사유별로 은퇴가 자발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을 보면, 정년퇴직 중 54%만 자발적이라 인식하여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의 52%와 그리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은퇴하는 경우 90% 이상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하기 싫어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이 여유가 있어 은퇴를 하는 경우 은퇴의 자발성은 90%를 전후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본인의 건강이나 배우자 및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은퇴하는 경우 73~82%가 은퇴가 자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손자녀를 위한 은퇴의 경우 71% 정도가 자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현실을 상

[그림 2] 은퇴사유별 분포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5,153명 중 (부분)은퇴자 1,170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당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직 불가 또는 고용주나 일로부터의 압박감 때문에 은퇴하는 경우 이의 자발성은 각각 59%와 64%로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보다는 높은 편이다. 해고나 직장이 사라져 은퇴하는 경우 은퇴의 자발성은 매우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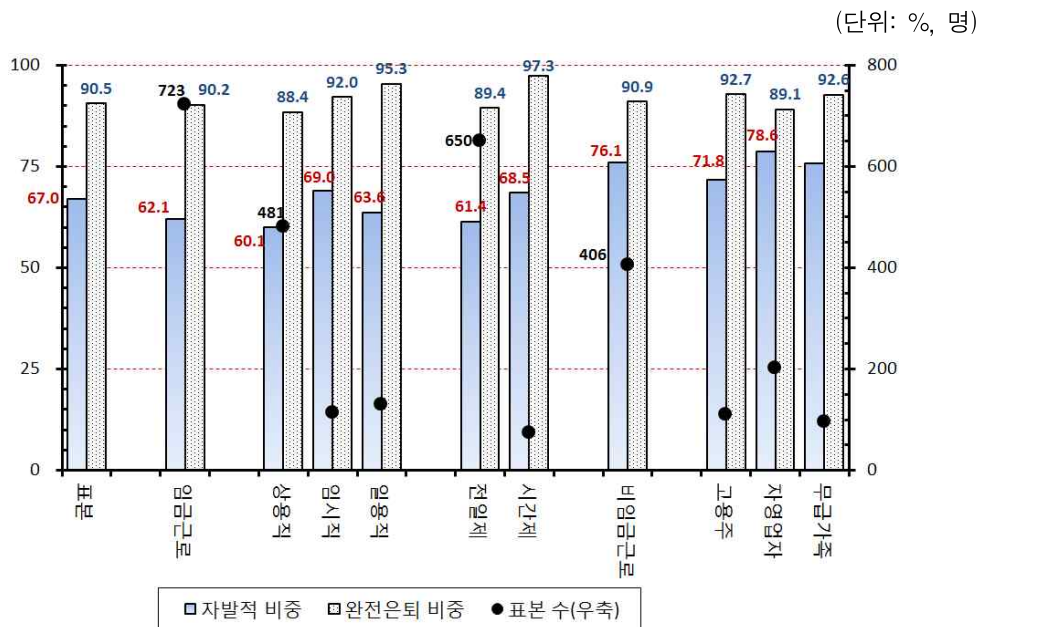
은퇴 직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은퇴 유형 및 은퇴의 자발성 비중을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듯, 완전은퇴의 비중은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은퇴 사유의 자발성은 임금근로에서는 62%에 불과한 반면 비임금근로에서는 7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은퇴의 결정에서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사유의 자발성을 세부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 중에서는 임시직에서 가장 높은(69%) 반면 상용직에서 가장 낮고(60%), 전일제보다는 시간제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비임금근로 중에서는 고용주보다는 자영업자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직전 일자리의 사업체규모별 은퇴 유형 및 은퇴의 자발성 비중을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듯, 자영자에 해당하는 '없음'에서 은퇴의 자발성이 79%로 가장 높고,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낮아져 30인 이상 50인 미만에서 60% a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69%)을 제외하면, 사업체규모가 이보다 크면 6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사업체규모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의 분포를 보면, 임금근로자에서는 50%가 1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임금근로에서는 15년 이하가 51%로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의 근속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24년 이상 장기근속은 25% 정도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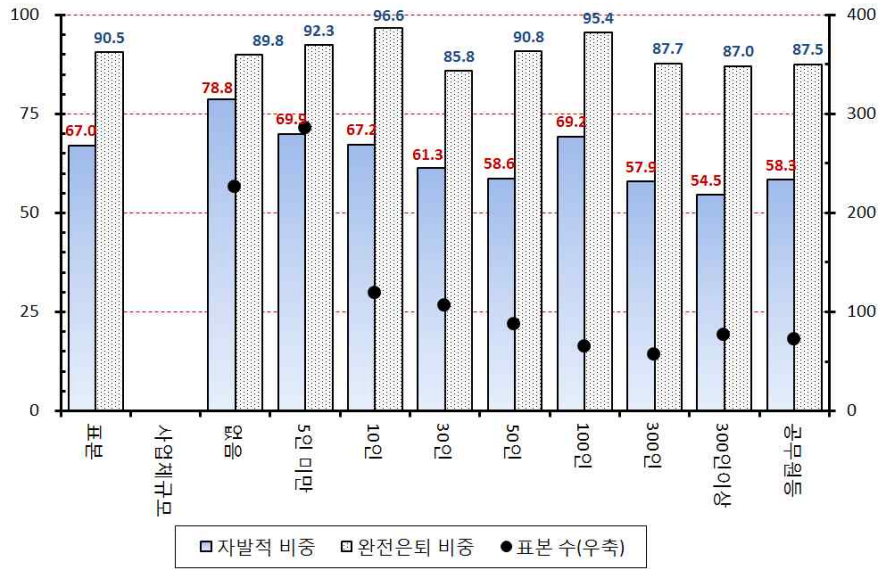
[그림 3] 종사상지위와 은퇴 유형 및 은퇴 사유의 자발성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5,153명 중 (부분)은퇴자 1,170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그림 4] 사업체규모와 은퇴 유형 및 은퇴 사유의 자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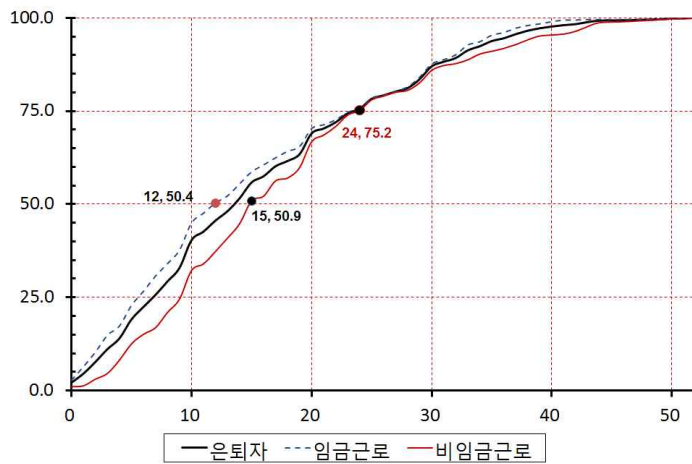
(단위: %, 명)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5,153명 중 (부분)은퇴자 1,170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그림 5]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의 누적분포

(단위: %)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5,153명 중 (부분)은퇴자 1,170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 III. 기초분석: 은퇴자의 행복도

#### 1. 자료와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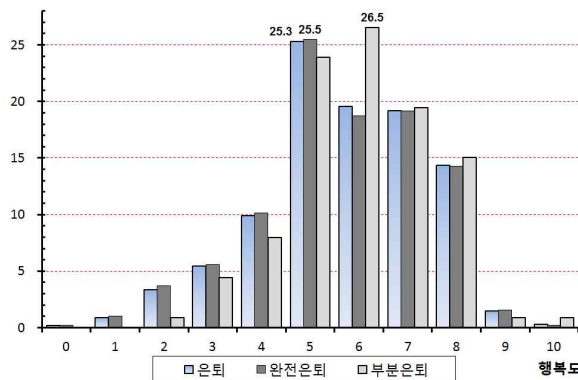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에서는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을 통하여, 행복도를 0점(전혀 행복하지 않다)에서 10점(매우 행복하다)까지 11개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sup>2)</sup>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부분)은퇴자 중 행복도에 적절하게 응답한 1,011명 표본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 표와 그림은 표본의 은퇴유형별 행복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완전은퇴자가 89%로  
 나타나며, 완전은퇴자의 행복도(5.7점)가 부분은퇴자(6.0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된 일자  
 리에서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 일은 계속’하고 있는 장년층의 행복도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5~7점으로 응답한 표본의 비중이 2/3에 해당하는데 완전은퇴자에서는 5점 응답자의 비중이 가  
 장 많은 반면 부분은퇴자에서는 6점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8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와 17%로 거의 차이는 없는 반면 5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전은퇴자에서는  
 20%를 넘는 반면 부분은퇴자에서는 13% 정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은퇴유형별 행복도의 분포

(단위: %)



2) 그 외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을 통하여  
 0~10점까지 11개 척도로 측정하는 한편 Candrill Ladder를 이용한 행복도를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  
 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 (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의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  
 까?’를 0~10점까지 11개 척도로 파악하는 한편 ‘5년 전,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와 ‘5년 후,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의 설문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  
 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0~10점의 11개 척도로 파악하고 있다.

<표 3> 은퇴자 표본의 행복도

(단위: 명, %, 점)

	은퇴자		은퇴 유형			
	전체		완전은퇴자		부분은퇴자	
표본	1,011		898	(88.8)	113	(11.2)
행복지수						
0	2	(0.2)	2	(0.2)	0	(0.0)
1	9	(0.9)	9	(1.0)	0	(0.0)
2	34	(3.4)	33	(3.7)	1	(0.9)
3	55	(5.4)	50	(5.6)	5	(4.4)
4	100	(9.9)	91	(10.1)	9	(8.0)
5	256	(25.3)	229	(25.5)	27	(23.9)
6	198	(19.6)	168	(18.7)	30	(26.5)
7	194	(19.2)	172	(19.2)	22	(19.5)
8	145	(14.3)	128	(14.3)	17	(15.0)
9	15	(1.5)	14	(1.6)	1	(0.9)
10	3	(0.3)	2	(0.2)	1	(0.9)
평균	5.7	[1.7]	5.7	[1.7]	6.0	[1.5]

주: ( ) 안의 숫자는 전체 표본 중 차지하는 비중.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부분)은퇴자 중 2000년 이후 은퇴한 1,011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원자료.

## 2. 은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행복도

은퇴자의 성, 연령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별 행복도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으로 5~7점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8점 이상은 16%, 5점 미만도 20% 가까운 수준으로 전체 행복도의 평점은 5.7%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보면, 행복도의 평점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3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서 11%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여성은 5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은 6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정도로 분포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54세 은퇴자의 행복도가 5.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55세 이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8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4세에서 12%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6%대로 다소 높은 편인 반면 3점 이하의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미만 저학력에서는 5.6점에 불과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에서는 6.3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8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저학력과 고졸에서는 13~14% 정도인 반면 고학력에서는 26~32%로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3점 이하나 4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미혼자와 별거자의 행복도가 3.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혼 유배우자의 행복도가 6.0점에 이르는 반면 이혼자나 사별자의 행복도는 각각 4.4점과 5.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8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3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건강과 행복도의 관계를 보면, 특히 장년층에서는, 주관적 건강이 행복도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장년 은퇴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이 양호(매우 건강 포함)한 편인 비중이 33%에 이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비중 역시 32% 정도로 나타나 평균적 건강상태는 보통으로 볼 수 있다. 매우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자의 행복도는, 비록 표본수는 매우 적지만, 6.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응답자의 행복도는 3.7점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 경우에도 5.1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표 4> 은퇴자의 행복도: 인구학적 특성

	은퇴자	행복도						(단위: 명, %, 점)		
		3 이하	4	5	6	7	8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11	100	100	256	198	194	163	5.7	(1.7)	
성		9.9	9.9	25.3	19.6	19.2	16.1			
여성	483	8.7	9.9	28.0	18.2	19.3	15.9	5.7	(1.6)	
남성	528	11.0	9.8	22.9	20.8	19.1	16.3	5.7	(1.7)	
연령대										
50~54세	87	19.5	10.3	24.1	18.4	16.1	11.5	5.3	(1.8)	
55~59	154	13.0	7.1	24.7	19.5	18.8	16.9	5.7	(1.8)	
60~64	220	7.7	9.1	23.2	20.0	23.2	16.8	5.9	(1.6)	
65~74	550	8.4	10.9	26.5	19.6	18.2	16.4	5.8	(1.7)	
교육수준										
고졸미만	564	11.2	11.7	28.4	17.2	17.6	14.0	5.6	(1.7)	
고졸	309	8.4	9.1	23.3	25.2	20.7	13.3	5.8	(1.6)	
초대졸	27	7.4	3.7	14.8	25.9	22.2	25.9	6.3	(1.5)	
대졸 이상	111	8.1	4.5	18.0	14.4	22.5	32.4	6.3	(1.8)	
혼인상태										
미혼	13	46.2	15.4	30.8	7.7	0.0	0.0	3.8	(1.4)	
기혼유배우	778	6.0	9.6	23.4	21.5	20.7	18.8	6.0	(1.6)	
별거	10	50.0	10.0	20.0	10.0	10.0	0.0	3.8	(1.9)	
이혼	68	29.4	16.2	29.4	10.3	10.3	4.4	4.4	(1.9)	
사별	142	15.5	7.7	33.8	15.5	17.6	9.9	5.4	(1.7)	
건강상태										
매우 건강	8	(0.8)	0.0	0.0	50.0	0.0	0.0	<b>50.0</b>	<b>6.8</b>	(2.0)
건강한 편	323	(31.9)	5.3	3.7	18.6	20.4	<b>27.9</b>	24.1	<b>6.4</b>	(1.5)
보통	358	(35.4)	3.9	9.5	24.9	<b>26.0</b>	19.3	16.5	<b>6.0</b>	(1.4)
건강하지 않은 편	257	(25.4)	14.8	17.1	<b>34.6</b>	13.2	12.1	8.2	5.1	(1.6)
매우 건강하지 않음	65	(6.4)	<b>47.7</b>	15.4	21.5	7.7	6.2	1.5	3.7	(1.9)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부분)은퇴자 중 2000년 이후 은퇴한 1,011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원자료.

### 3. 은퇴자의 경제적 요인과 행복도

경제적 요인과 행복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행복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전년도 연간소득 또는 최근 월소득으로 추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은 연 3천 8백만 원, 월 226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행복도가 3점 이하에서는 가구소득이 연 2천1백만 원 남짓한 수준(월 148만 원)인 반면 8점 이상에서는 연 5천1백만 원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월 295만 원)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소득원별 가구소득의 유무에 따른 행복도를 보면, 근로소득이 여부(68%가 가구의 근로소득 존재)가 행복도에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부동산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표 5> 은퇴자의 행복도: 소득 및 자산과 부채

	은퇴자		행복도						평균	
			3 이하	4	5	6	7	8 이상		
전체	1011	(100)	9.9	9.9	25.3	19.6	19.2	16.1	5.7	(1.7)
소득원별 소득 보유										
근로소득	685	(67.8)	9.3	9.6	25.7	20.7	19.6	15.0	5.7	(1.7)
금융소득	194	(19.2)	2.6	8.2	24.7	22.2	21.6	20.6	6.1	(1.4)
부동산소득	203	(20.1)	4.4	3.4	21.7	20.7	19.7	30.0	6.4	(1.5)
사회보장소득	608	(60.1)	7.4	9.0	23.4	21.4	20.6	18.3	5.9	(1.6)
이전소득	781	(77.3)	10.1	10.8	26.4	18.2	18.4	16.1	5.7	(1.7)
기타소득	72	(7.1)	5.6	9.7	33.3	13.9	22.2	15.3	5.8	(1.5)
자산 보유										
부동산 자산	321	(31.8)	5.3	5.6	22.7	20.2	22.7	23.4	6.2	(1.6)
금융 자산	699	(69.1)	6.2	6.9	23.3	21.9	22.2	19.6	6.1	(1.6)
부채 보유	384	(38.0)	9.1	10.2	24.5	22.4	17.2	16.7	5.8	(1.7)
주택 소유										
자가	789	(78.0)	6.1	8.5	25.6	21.0	21.0	17.7	6.0	(1.6)
전세	94	(9.3)	11.7	16.0	22.3	17.0	16.0	17.0	5.6	(1.8)
월세	103	(10.2)	30.1	17.5	25.2	11.7	11.7	3.9	4.5	(1.8)
기타	25	(2.5)	40.0	0.0	28.0	16.0	4.0	12.0	4.7	(2.2)
주택유형										
단독주택	370	(36.6)	10.0	11.6	26.2	20.5	15.4	16.2	5.7	(1.7)
아파트	419	(41.4)	7.2	8.4	25.5	21.0	21.2	16.7	5.9	(1.6)
연립주택	91	(9.0)	6.6	9.9	18.7	18.7	26.4	19.8	6.1	(1.7)
다세대주택	86	(8.5)	20.9	11.6	29.1	12.8	19.8	5.8	5.1	(1.7)
상가주택	37	(3.7)	10.8	8.1	21.6	16.2	18.9	24.3	6.0	(1.9)
오피스텔	6	(0.6)	50.0	0.0	33.3	0.0	0.0	16.7	4.3	(2.2)
가구소득(만원/연)	3,817		2,138	2,487	3,469	4,297	4,205	5,162		
	(4,375)		(2,052)	(2,578)	(3,734)	(4,491)	(3,138)	(7,015)		
가구소득(만원/월)	226		148	145	195	255	264	295		
	(217)		(166)	(143)	(186)	(212)	(230)	(275)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부분)은퇴자 중 2000년 이후 은퇴한 1,011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원자료.

자(20% 내외)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는 사회보장소득(60% 보유)이나 이전소득(77% 보유)에서는 미미하다.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각각 32%와 69%)의 행복도가 각각 6.2점과 6.1점으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채를 보유한 자의 행복도는 5.8점으로 그렇지 않은 자의 행복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장년층 은퇴자의 78%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약 20%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가 보유자의 행복도가 6.0점에 이르는 반면 전세나 월세 입주자는 각각 5.6점과 4.5점으로 자가 보유 여부가 행복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의 유형을 보면, 아파트 거주자가 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37%에 이르고 있으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거주자도 각각 9%를 전후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주택 유형과 행복도의 관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연립주택 거주자의 행복도가 6.1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행복도가 5.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4. 은퇴자의 사회적 자산과 행복도

<표 7>는 사회적 자산과 장년 은퇴자의 행복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18%가 ‘거의 매일’, 37%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지척지인(친구, 이웃, 친척)과 만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9%는 거의 교류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척지인과의 교류가 없는 은퇴자의 행복도는 4.1점에 불과한 반면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교류하는 은퇴자의 행복도는 6점을 넘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지척지인과 만남의 빈도가 잦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양과 취미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행복도와 일관된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교양 및 취미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모임(종교, 친목, 동호회) 참여빈도를 보면, 22%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하는데 이들의 행복도가 6점을 훌쩍 넘어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38%의 4.9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임의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행복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정 단체 가입여부가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이에 가입한 12%의 행복도가 6.7점으로 그렇지 않은 은퇴자(5.6점)에 비해 행복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보유와 행복도의 관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은 44%의 행복도가 5.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27%가 불교에 참여하지만 행복도는 5.8로 전체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는 편이며, 개신교와 가톨릭을 종교로 가진 19%와 9%의 행복도가 6.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종교활동의 적극성과 행복도의 관계를 보면,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5%의 행복도는 5.2점으로 종교를 갖지 않은 44%의 5.4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편인 24%의 행복도 역시 무종교자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자의 행복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 보유 그 자체보다는 종교활동의 적극성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은퇴자의 사회적 자산과 행복도

	은퇴자		행복도						(단위: 명, %, 점)	
			3	4	5	6	7	8	평균	편차
전체	1011	[100.0]	9.9	9.9	25.3	19.6	19.2	16.1	5.7	(1.7)
친구, 이웃, 친척과 교류										
거의 매일	180	[17.8]	7.2	5.6	25.6	18.3	22.2	21.1	6.1	(1.7)
일주일에 1회 이상	372	[36.8]	5.6	9.4	23.9	21.5	19.9	19.6	6.0	(1.6)
한 달에 1회 정도	296	[29.3]	6.4	8.4	27.4	24.0	21.3	12.5	5.8	(1.4)
6개월에 1회 정도	75	[7.4]	16.0	17.3	29.3	8.0	16.0	13.3	5.3	(1.8)
거의 만나지 않는다	88	[8.7]	39.8	19.3	20.5	9.1	5.7	5.7	4.1	(1.9)
교양과 취미활동(일평균)										
5시간 이상	26	[2.6]	3.8	11.5	15.4	11.5	15.4	42.3	6.6	(1.9)
4	27	[2.7]	3.7	18.5	18.5	22.2	18.5	18.5	5.9	(1.7)
3	56	[5.5]	7.1	5.4	21.4	19.6	28.6	17.9	6.1	(1.6)
2	71	[7.0]	1.4	5.6	22.5	15.5	25.4	29.6	6.5	(1.5)
1	95	[9.4]	2.1	3.2	17.9	23.2	28.4	25.3	6.5	(1.3)
1시간 미만	69	[6.8]	4.3	10.1	30.4	23.2	18.8	13.0	5.8	(1.4)
전혀 하지 않는다	667	[66.0]	13.2	11.2	27.1	19.3	16.6	12.4	5.5	(1.7)
종교, 친목, 동호회 참여										
1주일에 2회 이상	76	[7.5]	1.3	5.3	19.7	15.8	30.3	27.6	6.6	(1.5)
1주일에 1회 정도	145	[14.3]	4.8	9.7	16.6	21.4	21.4	26.2	6.3	(1.6)
1달에 2~3회	156	[15.4]	1.3	1.3	20.5	30.1	23.7	23.1	6.5	(1.2)
1달에 1회 정도	161	[15.9]	3.1	7.5	25.5	20.5	26.7	16.8	6.1	(1.4)
1달에 1회 미만	94	[9.3]	6.4	7.4	34.0	23.4	20.2	8.5	5.7	(1.4)
전혀 않는다	379	[37.5]	20.8	16.1	29.6	14.0	10.8	8.7	4.9	(1.8)
특정한 단체 가입										
가입	122	[12.1]	0.8	0.8	16.4	27.9	26.2	27.9	6.7	(1.2)
미가입	889	[87.9]	11.1	11.1	26.5	18.4	18.2	14.5	5.6	(1.7)
종교										
무종교	442	[43.7]	13.1	12.2	28.7	18.1	15.4	12.4	5.4	(1.7)
불교	275	[27.2]	7.6	8.7	28.0	21.8	20.0	13.8	5.8	(1.5)
개신교	192	[19.0]	6.8	7.8	19.3	18.8	24.5	22.9	6.2	(1.7)
가톨릭	89	[8.8]	9.0	7.9	12.4	22.5	22.5	25.8	6.2	(1.8)
종교활동의 적극성										
매우 적극적	69	[6.8]	5.8	2.9	15.9	15.9	27.5	31.9	6.5	(1.7)
대체로 적극적인 편	210	[20.8]	5.7	6.7	21.0	21.0	23.8	21.9	6.2	(1.5)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편	238	[23.5]	7.6	9.7	25.6	20.2	21.4	15.5	5.8	(1.6)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52	[5.1]	15.4	13.5	25.0	28.8	11.5	5.8	5.2	(1.6)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부분)은퇴자 중 2000년 이후 은퇴한 1,011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원자료.

## IV. 은퇴자의 행복도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은퇴자의 행복도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행복도가 0점에서 10점까지 서수(ordinal number)이므로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이나 순위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행복도를 기수(cardinal number)로 간주하고 통상적인 회귀분석모형(regression model)을 적용한다. 먼저 건강상태를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한 기본모형을 추정하고,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각각 추가한 모형을 검토한 후 이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통합모형을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은퇴사유가 추가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한다.

### 1. 행복도 결정요인의 기본모형

다음 표는 성, 교육수준, 혼인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기본모형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모형의 추정에서는 교육수준의 가변수를 사용한 경우와 교육연한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후자가 다소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본모형으로 설정한다.

추정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 0.3점의 차이가 있다. 연령은 2차식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내는데, 69세(=3.6492/(0.2630\*2))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교육연한이 1년 늘어날 때 행복도가 0.04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졸과 비교할 때 고졸 미만 저학력이나 전문대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기혼 유배우와 비교할 때, 미혼의 행복도가 1.3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혼 역시 행복도를 1점 넘게 낮추고 있지만 사별은 행복도를 0.5점 정도 낮추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

건강상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보통의 건강상태와 비교할 때,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 때 행복도가 0.3점 높아지는 반면 좋지 않은 편일 때 0.8점, 매우 좋지 않을 때 1.9점이나 낮아진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을 때 행복도는 0.5점 높아지지만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뜻밖의 결과이다.

### 2.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의 효과

#### 가. 경제적 자산의 효과

다음 표는 기본모형에 경제적 자산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먼저 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가구소득(로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를 높이고 있다.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을

<표 7> 은퇴자의 행복도 결정요인: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모형 1		모형 1'	
상수	-7.0760	(4.4033)	-6.9202	(4.3771)
여성	0.2511	(.1055) **	0.2982	(.1056) ***
연령/10	3.8856	(1.4013) ***	3.6492	(1.3904) ***
(연령/10)의 제곱	-0.2854	(.1107) ***	-0.2630	(.1099) **
교육연한			0.0423	(.0128) ***
교육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0774	(.1128)		
초대졸	0.3676	(.2969)		
대졸 이상	0.3592	(.1642) **		
혼인상태(기준: 기혼 유배우)				
미혼	-1.4087	(.4216) ***	-1.3147	(.4209) ***
이혼	-1.0522	(.1792) ***	-1.0610	(.1785) ***
사별	-0.4979	(.1472)	-0.4709	(.1473) ***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0.5665	(.5281)	0.5479	(.5261)
좋은 편	0.3313	(.1148) ***	0.3261	(.1145) ***
좋지 않은 편	-0.7980	(.1217) ***	-0.7827	(.1217) ***
매우 좋지 않음	-1.9848	(.2027) ***	-1.9430	(.2025) ***
모형적합도	25.77	***	30.82	***
조정된 R <sup>2</sup>	0.2417		0.2451	
모형 검증				
교육	2.84	**	11.03	***
혼인상태	16.95	***	16.41	***
건강상태	41.98	***	40.04	***

주: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는 모든 설명변수의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F-통계량.

모형검증은 해당 설명변수들의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F-통계량.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부분)은퇴자 중 2000년 이후 은퇴한 1,011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원자료.

때, 소득원별 소득 보유는, 모형 검증 결과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데, 각 개별 소득원별 효과를 보면, 먼저 근로소득의 존재는 오히려 행복도를 0.5점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일을 통한 소득의 향상 그 자체가 장년층 은퇴자의 행복도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모두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부동산소득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소득으로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를 각각 0.3점과 0.6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채 보유는 0.2점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자가 보유 여부가 미치는 효과를 보면, 자가 보유에 비해 전세와 월세 모두 행복도를 낮추는 효과를 갖지만 월세의 부정적 효과만 0.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세의 부정적 효과는 0.1점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한편 주택의 유형이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은퇴자의 행복도 결정요인: 소득 및 자산/부채의 효과

	모형 (2)				모형 (3)		
로그(가구소득)	0.2857	(.0698)	***	전세	-0.1059	(.1594)	
근로소득	-0.4635	(.1198)	***	월세	-0.5551	(.1638)	***
금융소득	0.0386	(.1195)		기타	-0.2180	(.3050)	
부동산소득	0.3375	(.1206)	***	개인주택	-0.0782	(.1084)	
사회보험소득	0.0432	(.1085)		연립주택 등	0.0127	(.1216)	
이전소득	-0.0168	(.1184)		부동산자산	0.2514	(.1057)	**
기타소득	-0.1303	(.1817)		금융자산	0.5578	(.1048)	***
				부채	-0.2243	(.0990)	**
모형적합도	21.7900	***			21.89	***	
조정된 R <sup>2</sup>	0.2704				0.2821		
모형 검증							
소득유형	4.7200	***					
주택소유					3.84	***	
주택유형					0.36		
자산부채					13.94	***	

주와 자료: <표 7>의 주와 자료를 참조.

모형 (1')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에 대한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 나. 사회적 자산의 효과

다음 표는 기본모형에 사회적 자산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먼저 지척지인과의 교류 빈도가 미치는 전반적 효과를 보면, 모형 검증 결과에서 보듯, 행복도의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 교류빈도의 효과를 보면, 지척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빈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만 6개월의 1회 정도로 빈도가 낮으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거의 매일 교류하는 경우 행복도가 1점 이상 상승하고 1주일에 1회 이상인 경우 0.9점, 한 달에 1회 정도인 경우 0.8점으로 상당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양 및 취미활동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갖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1일 평균 시간으로 구분한 활동시간이 일정한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 교양 및 취미활동이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자체를 사회적 자산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임(종교, 친목, 동호회) 참여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참여 빈도별로 보면,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0.5점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데

이러한 효과가 단조적이지는 않으며 한 달 1회 미만인 경우에는 그 효과도 작고 통계적 유의성도 떨어진다. 단체 가입은 행복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3점 정도 추가적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종교의 보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므로 종교활동의 적극성을 고려하였다. 종교를 보유하지 않은 자와 비교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우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도를 0.5점, 대체로 적극적인 경우 0.3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종교활동이 행복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은퇴자의 행복도 결정요인: 사회적 자산의 효과

모형 (4)			
지척지인과 교류(기준: 없음)		모임참여(기준: 없음)	
거의 매일	1.0196 (.1945) ***	1주일 2회 이상	0.5024 (.2070) **
1주일에 1회 이상	0.8554 (.1770) ***	1주일 1회 정도	0.4359 (.1602) ***
한달에 1회 정도	0.8004 (.1784) ***	한 달 2~3회	0.5220 (.1547) ***
6개월에 1회 정도	0.3538 (.2265)	한 달 1회 정도	0.4872 (.1413) ***
취미활동(기준: 없음)		한 달 1회 미만	
5시간 이상	0.5651 (.2925) *	단체 가입	0.3486 (.1457) **
4	-0.0140 (.2795)	종교활동(기준: 없음)	
3	-0.0191 (.2006)	매우 적극적	0.4934 (.2012) **
2	0.3939 (.1810) **	대체로 적극적	0.2505 (.1286) *
1	0.3539 (.1607) **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0.1197 (.1178)
1시간 미만	0.0038 (.1814)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0.0563 (.2069)
모형적합도		모형 검증	
조정된 R <sup>2</sup>	16.54***	지척지인과 교류	8.79***
	0.3229	취미 활동	1.97*
		모임 참여	3.55***
		단체 가입	5.73**
		종교 활동	2.00*

주와 자료: <표 8>의 주와 자료 참조.

#### 다. 통합모형

다음 표는 기본모형에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모두 함께 고려한 통합모형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논의한 모형의 추정결과와 차이가 현저한 부분만 설명한다. 먼저 기본모형에서는 여성의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모두 고려할 때, 행복도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교육수준이 장년 은퇴자의 행복도에 미

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안주엽외(2015)의 ‘일과 행복(I)’의 제3장의 경제적 자산을 고려한 모형의 추정에서 교육수준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사회적 자산을 제외한 모형을 추정하면(보고는 생략), 유의수준이 낮기는 하지만(0.09), 여전히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히 장년층 은퇴자에서는, 사회적 자산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이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건강상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의 건강상태와 비교할 때 양호한 건강상태는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다. 이는 경제적 자산을 고려한 안주엽·성지미(2016)의 추정결과에서 여전히 양호한 건강상태가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와는 상이

<표 10> 은퇴자의 행복도 결정의 통합모형

상수	-2.9346 (4.1894)	자산/부채 보유(기준: 없음)	
여성	0.0940 (.1036)	부동산 자산	0.1263 (.1061)
연령/10	2.3743 (1.3305)*	금융 자산	0.4894 (.1060) ***
(연령/10)의 제곱	-0.1799 (.1046) *	부채	-0.3596 (.0998) ***
교육연한	0.0037 (.0127)	지척지인 교류(기준: 없음)	
혼인상태(기준: 기혼 유배우)		거의 매일	0.9666 (.1884) ***
미혼	-0.8205 (.3973) **	1주일에 1회 이상	0.8376 (.1723) ***
이혼	-0.6987 (.1824) ***	한달에 1회 정도	0.7832 (.1754) ***
사별	-0.3586 (.1419) **	6개월에 1회 정도	0.3912 (.2230) *
건강상태(기준: 보통)		모임참여(기준: 없음)	
매우 좋음	0.4442 (.5020)	1주일 2회 이상	0.5682 (.1977) ***
좋은 편	0.0992 (.1092)	1주일 1회 정도	0.4751 (.1537) ***
좋지 않은 편	-0.4993 (.1158) ***	한 달 2~3회	0.5474 (.1515) ***
매우 좋지 않음	-1.4354 (.1955) ***	한 달 1회 정도	0.4954 (.1376) ***
로그(가구소득)	0.1311 (.0681) *	한 달 1회 미만	0.3527 (.1624) **
소득유형별 소득(기준: 없음)		단체 가입	0.2905 (.1424) **
근로소득	-0.4113 (.1152) ***	종교 활동(기준: 없음)	
금융소득	-0.2987 (.1193) **	매우 적극적	0.5055 (.1958) ***
부동산소득	0.3666 (.1273) ***	대체로 적극적	0.2693 (.1256) **
사회보험소득	-0.0320 (.1029)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0.0840 (.1148)
이전소득	-0.1173 (.1131)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0.0563 (.2015)
기타소득	-0.1022 (.1721)		
주택보유형태(기준: 자가)			
전세	0.0877 (.1539)		
월세	-0.5233 (.1581) ***		
기타	-0.0697 (.2907)		
모형적합도	16.17***		
조정된 R <sup>2</sup>	0.3633		

주와 자료: <표 7>의 주와 자료 참조.

한 것으로, 사회적 자산을 제외한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와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산을 고려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건강상태가 사회적 자산 즉 지척지인과의 교류 등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추가적으로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데 특히 양호한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지 않는 반면 불량한 건강상태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산이 행복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척지인과의 교류 빈도가 많을수록, 모임(종교, 친목, 동호회) 참여 빈도가 많을수록, 특정단체에 가입할수록, 종교를 갖고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할수록 장년 은퇴자의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 3. 은퇴 사유의 효과

마지막으로 은퇴 사유가 장년 은퇴자의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다음 표에서 보듯, 은퇴가 자발적이라고 인식하는 은퇴자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은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의 자발성이 다소 은퇴 후 삶에서 느끼는 행복도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은퇴 사유와 행복도

	은퇴자		행복도						(단위: 명, %, 점)	
			3	4	5	6	7	8	평균	편차
전체	1011	[100.0]	9.9	9.9	25.3	19.6	19.2	16.1	5.7	(1.7)
은퇴 사유										
정년퇴직	202	20.0	5.0	6.9	20.3	22.3	27.2	18.3	6.2	(1.5)
권고사직 등	77	7.6	6.5	13.0	22.1	19.5	19.5	19.5	5.8	(1.8)
여유가 있어서	18	1.8	0.0	0.0	16.7	22.2	16.7	44.4	7.1	(1.4)
일자리 찾지 못해	70	6.9	12.9	12.9	18.6	21.4	22.9	11.4	5.6	(1.6)
일하기가 싫어져	83	8.2	6.0	8.4	25.3	25.3	15.7	19.3	6.0	(1.5)
본인의 건강 문제	388	38.4	16.5	13.1	30.4	15.5	16.0	8.5	5.2	(1.7)
배우자/가족의 건강 문제	45	4.5	4.4	8.9	24.4	17.8	22.2	22.2	6.1	(1.6)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78	7.7	1.3	3.8	24.4	23.1	17.9	29.5	6.4	(1.4)
기타/없음	50	4.9	8.0	4.0	26.0	24.0	12.0	26.0	6.0	(1.8)
은퇴의 자발성										
자발적	684	67.7	8.6	9.9	25.7	18.9	18.7	18.1	5.8	(1.7)
비자발적	327	32.3	12.5	9.8	24.5	21.1	20.2	11.9	5.5	(1.8)

주: [ ]안의 숫자는 전체 표본 중 차지하는 비중.

표본: 장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부분)은퇴자 중 2000년 이후 은퇴한 1,011명.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원자료.

은퇴의 주된 이유별로 행복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은퇴를 결정한 경우 행복도가 7.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가족들과의) 여가를 위하여 은퇴를 결정한 경우에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행복도가 6.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은퇴하게 된 경우에 행복도가 5.2점으로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은퇴 사유가 행복도에 추가로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할 때, 여유가 있어 은퇴를 결정하거나 배우자/가족의 건강 문제, (가족들과의) 여가를 위해 은퇴를 결정한 경우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나 부분은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 은퇴 사유의 효과

	은퇴사유(1)	은퇴사유(2)	부분은퇴
은퇴 사유(기준: 정년퇴직)			
권고시작 등	0.0596 (.1888)		0.0604 (.1889)
여유가 있어서	0.8093 (.3377) **		0.8154 (.3382) **
일자리 찾지 못해	0.0112 (.1956)		0.0169 (.1962)
일하기가 싫어져	0.0650 (.1856)		0.0686 (.1859)
본인의 건강 문제	0.1043 (.1426)		0.1097 (.1433)
배우자/가족의 건강 문제	0.4793 (.2348) **		0.4877 (.2358) **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0.3641 (.1927) *		0.3664 (.1929) *
기타/없음	0.4994 (.2235) **		0.5043 (.2239) **
비자발적 은퇴		-0.1193 (.0946)	
부분은퇴			0.0567 (.1432)
모형적합도	13.79***	15.80***	13.49***
조정된 R <sup>2</sup>	0.3681	0.3637	0.3676

주와 자료: <표 8>의 주와 자료 참조. 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포함한 모형으로 이들의 추정치는 생략.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제18차조사(2015년)의 ‘장년층 부가조사’에 포함된 은퇴자 1,170명의 은퇴실태를 간략히 분석하는 한편 이 중 2000년 이후 은퇴자 1,011명을 대상으로 ‘삶의 인식 부가조사’의 행복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은퇴자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먼저,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자산(주관적 건강상태)에 추가하여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고려한다. 은퇴 후 경제 여건을 나타내는 경제적 자산에는 가구총소득, 다양한 소득원별 본인의 소득 유무, 거주 주택의 소유형태 및 다양한 유형의 자산과 부채가 포함된다. 사회적 자산에는 지척지인(친구, 친척, 이웃 등)과의 교류의 빈도, 각종 모임(종교, 친목, 동호

회)에의 참여 빈도, 종교 보유와 종교활동의 적극성, 교양 및 취미활동 투입 시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에 추가하여 은퇴 사유가 은퇴 후 행복도에 미치는 추가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년층(50~74세)에 있어 남성에서는 미은퇴자의 행복도가 완전은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부분은퇴자 경우 미은퇴자와 유사한 수준의 행복도를 보여주는 반면 여성에서는 생애에 걸쳐 근로경험이 전혀 없는 자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은퇴자나 미은퇴자의 행복도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특히 50대 남성 완전은퇴자의 행복도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50대 후반을 제외한 여성 부분은퇴자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00세 시대에서 50대 남성의 은퇴가 주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는 정년제도의 안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년퇴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본인 건강의 악화로 은퇴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정년퇴직이 자발적 은퇴라 보는 비중이 54%에 불과한 반면 본인 건강 악화는 73%가 자발적 은퇴라 인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법정퇴직 연령을 늦추는 한편 근로자의 건강을 보전토록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은퇴자의 행복도 결정요인의 추정결과를 볼 때, 경제적 자산 뿐 아니라, 특히 장년 은퇴자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은퇴자가 사회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에서 고려한 사회적 자산의 대부분이 대부분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장년층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한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정책함의를 찾는다면, 첫째, 장년 은퇴자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은퇴 후 소득흐름(post-retirement income stream)을 보장하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은퇴 후 뿐 아니라 근로자 재직 시 주기적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악화로 인한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런 이직 및 은퇴를 예방하는 한편 은퇴 후 건강자산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퇴자를 포함한 고령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이들의 사회적 자산을 늘리는 은퇴공동체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와 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기초생활보조보다는, 추가의 재정부담 없이, 이들이 일정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산적 활동과 상호 잦은 만남을 통하여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사회적 자산을 형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국민연금수급 개시연령 또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년연장 방안의 모색에 있어 청년층 실업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